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HAPPY FAMILY

가정이 교회가 된다

WEEK

04



Jacob's
Ladder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

행 9:1-16

찬양 시간

- 1 실로암
- 2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 3 나의 생명 되신 주

* 큐알 코드를 인식하여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

-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 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6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저희처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2절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주여 그 사람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9:15**

아나니아는 사울이 아파도 되고 고쳐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주님께서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사울과 만난 후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그의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도 아나니아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찾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 시간

Q 내 걸모습에서 어디를 고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사람은 무엇을 고치면 좋겠는지 나누어 봅시다.

Q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격려하며 축복해야 할 사람(나 자신, 배우자, 자녀, 교회 지체 등)은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